

고3 유권자 첫 등장...비례의석 노린 군소정당 대거창당

4·15 총선 D-100

4월 선거 어떻게 바뀌나

올해 총선은 과거 선거와 다르게 준동맹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정당 비례대표 1표 등 유권자 개인당 2표를 행사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특히 지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광주·전남지역 청소년 3만7800여명이 당장 올해 총선에서 투표를 하는 등 지역 정가에도 '새내기 유권자'들이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제도를 혼동하거나 잘못 해석해 생기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에 돌입했다.

일부에서는 유권자 연령 하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유권자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됐고, 이에 따라 내년 고등학교 3학년생 중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학생은 총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같은 반 내의 친구 중 일부는 투표권을 갖고, 누구는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돼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 역시 19세에서 18세로 하향 됐지만 유권자 자격을 갖춘 학생의 선거운동은 가능하고 생일이 느린 학생이 유권자인 친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 된다. 같은 반의 고3 학생이라도 유권자가 아닌 학생은 선거운동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전국적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인구는 53만2295명이다. 광주에서는 1만8393명, 전남에서는 1만9460명 등 이 지역에서 3만7853명이 대상이다. 이 때문에 선거권은 추가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자료 자체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위 산하 선거연수원에서 오는 3월 개학 전까지를 목표로 사례·자료집을 만들어 각 사·도 교육청과 학교에 제공한다 는 계획이다. 추가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선거위는 정당투표용지가 길어져 기존의 개표기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수작업 개표까지도 염두에 두고, 원활한 개표 진행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등 준비를 완벽히 할 계획이다. 실제 21대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색 공약을 내걸고 국회 입성을 노리는 정당들이 앞 다투어 등장하고 있다. 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기존 정당을 포함한 34개 정당이 정식 등록돼 있다. 여기에 새로운보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를 꾸리고 정식 등록을 기다리는 정당(17개)까지 더하면, 총 51개 정당이 21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21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등록 정당 수가 2배 넘게 많아진 것이다.

선거위는 선거일(4월 15일) 60일 전인 오는 2월 15일까지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아 3월 16일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22일 전인 오는 3월 24일부터 작성하고, 후보자등록 신청은 3월 26일부터 2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후보자들의 선거기간 개시일은 4월 2일부터고, 사전투표일은 10일과 11일 이틀간이다.

한편, 별도 기관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에 따라 선거운동 제한액과 선거 지역구가 변동할 가능성은 있다. 선거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여야 정당들이 선거구획정에 대한 쟁점도 제각각인 만큼 정치권은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선 때마다 선

전국 53만여명 새내기 투표
선관위 선거 홍보·교육 나서
50개 이상 정당 수작업 개표 대비
선거구획정 놓고 진통 불가피

제 21대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색 공약을 내걸고 국회 입성을 노리는 정당들이 앞 다투어 등장하고 있다. 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기존 정당을 포함한 34개 정당이 정식 등록돼 있다. 여기에 새로운보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를 꾸리고 정식 등록을 기다리는 정당(17개)까지 더하면, 총 51개 정당이 21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21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등록 정당 수가 2배 넘게 많아진 것이다.

선거위는 선거일(4월 15일) 60일 전인 오는 2월 15일까지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아 3월 16일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22일 전인 오는 3월 24일부터 작성하고, 후보자등록 신청은 3월 26일부터 2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후보자들의 선거기간 개시일은 4월 2일부터고, 사전투표일은 10일과 11일 이틀간이다.

한편, 별도 기관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에 따라 선거운동 제한액과 선거 지역구가 변동할 가능성은 있다. 선거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여야 정당들이 선거구획정에 대한 쟁점도 제각각인 만큼 정치권은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선 때마다 선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4호인 소병철 전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입행사에서 이혜찬 대표 등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구 획정은 선거일에 근접해서 이뤄져 왔다. 각각 지난 20대 총선은 42일·19대 44일·18대 47일·17대 37일 전에서야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영입인재 4호' 소병철 前고검장 "검찰개혁 소명"...순천 지역구 출마 예상

민주당 '영입인재 4호' 소병철 前고검장 "검찰개혁 소명"...순천 지역구 출마 예상

민주당은 5일 4·15 총선을 앞두고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62) 순천대 석좌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소 전 고검장이 전략공천을 통해 분구 가능성이 높은 고향 지역구 순천시에 출마 하지 않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직 검찰 간부 출신으로는 최초로 전관예우를 거부했으며, 2017년 검찰총장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되기도 했던 소 전 고검장을 법조 출신 첫 영입 인사로 낙점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더욱 힘을 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입인재 4호'인 소 전 고검장의 입당을 공식 발표했다. 전남 순천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소 전 고검장은 1986년 사법시험 25회(사법연수원 15기)로 검사에 입관해 법무부 검찰국,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부 검찰 1·2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기획통'으로 꼽힌다.

대전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을 거쳐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3번 추천되며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소 전 고검장은 검찰 퇴직 후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을 끊기 위해 대령로펌의 영입 제안을 일체 거절하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아 법조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켰다"고 소개했다. 소 전 고검장은 공직 퇴직 후, 농협대학교와 순천대학교에서 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다.

소 전 고검장은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쫓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올바른 검사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는다"며 "선배로서 그들의 사명감을 지켜주고 당당한 검사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열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을 시대적 소명으로 여기는 소 교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민주당은 소 교수와 함께 국민 누구나 법 앞에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 전 고검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고향인 순천 지역구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당의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누구나 고향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느냐"고 답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해찬 "輿 의원 20명 불출마 예상...종로·광진 등 전략공천"

"총선 어느당이든 과반 어려워"
"영입인사 10명 정도 더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3일 "비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현역 의원 중 불출마할 사람이 20명쯤 될 것"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한 곳들이 전략공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튜

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전략지구는 최소화한다"면서 "현재 경선에서 나갈 사람으로는 될 가능성이 없는 곳이지만 영입해서 하면 승패를 바꿀 수 있는 곳은 전략지구로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야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한 후보가 있는 곳이나 서울 종로·광진처럼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곳이 전략공천 지역이 된다"고 말했다. 4·15 총선 목표 의석에 대해 그는 "다다익선"이라며 "당은 당연히 해야 하고

현재 자유한국당과 20석 이상 차이가 나는 데 이를 더 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은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인재 영입에 대해선 "당의 정책 노선과 부합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어떻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는가가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문화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분들 중심으로 영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10명 정도

더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총선 공약으로 선보일 정책들은 주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분야를 역점으로 마련했다며 7개 분야에 핵심 공약 3개씩 총 21개를 내주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총선 결과에 대해 그는 "작은 정당들이 많이 생기고 1당이든 2당이든 과반은 어렵다"며 "우리 당도 비례가 7석이나 많아야 8석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교섭단체까지 되면 어려운 것 같고 최소 15석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내일 신년사...경제 성과 강조·대북 메시지 주목

25분 분량 TV로도 생중계
핵심 키워드 '확실한 변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7일 발표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9시 30분부터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

이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TV로도 생중계되며 25분 정도 분량으로 알려졌다. 신년사에는 올해 분야별 국정운영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핵심 키워드는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확실한 변화'를 새해 국정운영의 큰 틀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인사말

을 통해 권력기관과 공정사회 개혁 등을 화두로 사회 분야의 국정 목표를 이미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신년사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와 정치 분야 등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이나 실현 가능성이 크다. 또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상생 변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내 남북 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가겠다"고 말한 바 있어 7일 신년사에서는 북

미 비핵화 대화에 필요한 '촉진지역' 노력의 구체적 방안 등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확실한 변화"와 함께 새해 국정의 또 다른 키워드로 제시된 '상생 도약'과 관련한 경제·사회 분야의 국정운영 방향도 주목된다. 청와대가 집권 4년 차에 접어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적 불명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낼 방안 등에 관심이 쏠린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